



기독교교육은 예수님 중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6 인터뷰 진행 이경원(서울국제크리스찬이카데미 교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세계관의 근본적인 신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등등. 저는 세계관을 하나의 현상(spectacle)으로 보고 싶습니다.



리처드 에들린 박사 Dip(Tchg, PG-Dip Arts; MA(New Zealand); EdD(Alabama); PhD(Hon)

리처드 에들린 박사는 뉴질랜드 출생으로서 같은 교사 출신의 부인과 함께 수 년 동안 중등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후 호주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에서 학생으로 10년 간 기독교 교육 박사 후 과정을 가르쳤다.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은 전세계의 기독교 교사들에게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교육학 석사 (M.Ed)를 받을 수 있는 원거리 교육기관이다.

2009년 1월부터는 전세계의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를 연구하는 에드윈 인터내셔널(www.edwininternational.org)에서 이사로 있는 한편 한국, 인도 등의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강의도 있다. 에들린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수 많은 강연을 했으며 저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는 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2012년 후반에는 4차 개정본이 출판될 예정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레벨의 기독교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강연하는 에들린 박사는 세계관 문화 훈련 커리큘럼과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교사들의 효율적인 기독교 수업 전략에 주목한다. 현재 부신에 있는 고신 대학의 교원 교수로 12 개국 이상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을 강의하고 있으며 고신대 교직원 훈련도 겸하고 있다.

Question 현재 고신대학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은 일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아내와 이곳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er (호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선생님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볼리비아에서 신교사로 있었습다. 저는 제3세계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고신대 김성수 총장님께서 고신대로 와서 그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3세계도 아니고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저의 뜻과 맞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고신대는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온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영어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저는 박사학위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들도 교육도 합니다.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말마다 저의 집에서 진행되는 교제입니다. 26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누구라도 와서 성경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치행하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고민을 나누고 또 일부다처제의 문화에서 온 학생들은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독교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를 축약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학교입니다.

Question 교수님은 기독교학교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Answer 기독교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를 축약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학교입니다. 하나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을 맞추어 기둥이 기대하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Question 세계관을 강력히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세계관의 근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등



등. 저는 세계관을 하나의 현상(spectacle)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 살아가고 사물을 보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모든 관계에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호 간의 관계나 교사, 부모와의 관계에도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이 갖는 중요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채하는 다른 무엇을 섬깁니다. 과학이나 수학 시간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인



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태양을 직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비추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파트너가 되어 교육에 참여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닮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는 예수님과 같아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학생 위주의 교육(child centered education)이 아니고 내용 위주의 교육(content centered education)도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육(Christ centered education)입니다. 넷째 빛과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Question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갖는 부담이 가장 크고 그 역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5번, 12~13년 동안 학교에 다닙니다. 당연히 학교 교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와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교사의 가르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는 절대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교사와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역사나 사회과목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수업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할 수 있을까요?

Answer 많은 기독교 교사가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업과 접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일부, 혹은 반씩 섞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도 기독교인이어서, 매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모든 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말씀을 수학과 그 수에 억지로 끼워 넣어 아이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과학 수하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창조세계를 보는 자신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Question 교수님이 시작하신 Edserv International 시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Answer Edserv International은 저와 제 아내가 시작한 단체로 기독교 교육자를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호주 주 정부 기관(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er)을 은퇴한 후에도 기독교 교사를 교육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계속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재정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인도에서 기독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재정적 문제가 있었는데 후원자들 덕분에 제가 인도로 가서 기독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현장에서 느낀 한국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한국은 국제적으로 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교육에 관해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립학교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고 학원 숙제를 한다고 학교에 와서는 잠만 자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매우 불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고등 교육 과정으로 올라갈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이 갖는 중요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은 없습니다. 둘째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입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넷째 빛과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수록 유교적 문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교사를 존경합니다. 장점은입니다. 외국인 교사의 자에게도 언제나 무례를 합니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친밀해지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5%나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고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이 교회들이 기독교 교육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거나, 이 문제를 기독교 학교가 도울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이 보낼 때 많은 학생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이 임하셔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Question **미지마모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난 140년간 복음에서 일본은 많은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도 많은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위해 대단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한국이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선교사역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방국가에 있었던 물질만능주의가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충족하려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고 즐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 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즐거움을 찾고 누릴 수 있게 기독교 교육과 학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원장대 직공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석사 및 박사(DMA)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의 원더 교제를 거쳐 현재 하일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사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Y)' 이 있다.



DCTY 컨퍼런스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제5회 DCTY 기독교교육 컨퍼런스가 2012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다. "제상을 바꾸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리처드 에들먼 박사와 신국원(충신대 철학과), 이지성("리딩으로 리드하라" 저자) 세 분의 강사가 주제 강의를 맡았으며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 청소년을 위한 진로비전캠프도 마련되어 성경적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